신설학교 납품 비리 3명 기소

‘시교육청 비자금’ 무혐의 처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6일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W중 행정실장 윤모(46)씨와 S중 행정실장 윤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광주 W중 김모(57) 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학교에 컴퓨터·교구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증여)로 컴퓨터업체 대표 백모(47)씨 등 납품업자 15명에 대해서는 ▲뇌물이 고액이 아닌 점 ▲범행 자백 등의 이유로 약식기소했다. 약식청구 벌금액은 70만~500만원선이다.

검찰에 따르면 W중 김모 (57) 교장과 윤모(47) 행정실장은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간 방송실 어학실 장비, 교구, 구내전화 등 기자재 업체에 납품을 받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천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S중 윤모(53) 행정실장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S중 행정실장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같은 학교 박모(59) 교장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광주지검 특수부가 광주시교육청 이모(53)사무관을 상대로 그동안 진행해온 시 교육청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이 사무관이 가지고 있던 7천만원의 수표는 계좌추적 결과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광주시 교육청 사건을 일단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시 교육청 3개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부와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예산집행 관련 서류와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 서류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였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대, 여성 납치해 “죽여 달라” 협박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20대 남자가 거리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납치해 “죽여 달라”고 위협, 자신을 찌르게 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레스토랑 앞 길에서 김모(여·32·광주시 남구)씨를 납치,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여 동안 흉기로 “살고 싶으면 나를 찔러라”고 협박한 박모(26·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를 16일 납치·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박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달아났으며, 박씨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공터에서 피를 흘린 채 신음하다 주민에게 발견돼 현재 조선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 불입건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수능 D-30’ 마무리 준비 바쁜 고3 교실

기출문제·오답노트로 ‘총정리’

실전연습 하며 시간 안배 훈련

심리적 안정 속 실력발휘 주력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11월1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고 3 교실이 마무리 준비로 한층 바빠졌다.

고 3 담당 교사들은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해 교과서 위주로 핵심적인 사안을 복습시키는가 하면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총정리를 도와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유사문제 출제를 통해 마무리 수업을 하고 있다. 진학담당 교사들은 특히 수험생들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채 평소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학생들도 자율학습 시간 중 그동안 봐왔던 문제집과 모의고사 시험지를 복습하며 자신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오답 체크’로 마무리 중이다. 특히 앞으로 수능 당일까지 시험이 없는 만큼 매일 과목별로 10~20문항씩 문제를 풀며 실전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입시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현재까지 학습한 내용 가운데 어렵게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시험은 9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 및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마무리기간 정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서석고 김오자 진학실장은 “마무리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면 수험생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길 = 앞으로 남은 한 달을 몇 달처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업시간 중 교과서에 필기했던 내용 중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것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것을 골라 영역별로 10쪽 내외로 노트에 정리한 후 이를 꾸준히 보는 것이 좋다. 역대 수능문제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 시험 등에서 다뤄진 기출문제는 교과서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주말을 이용해 실전연습을 하면서 문제풀이 속도를 조절하며 시간 안배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오답 노트를 틈틈이 꺼내 어려웠던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고 그와 유사한 문항을 풀어보는 등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BS 수능강의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광주 인성고 기세관 진학실장은 “서두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학생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마지막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고교들이 2007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30일 앞두고 일제히 총정리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여고 3학년 학생들이 16일 수업 중 기출문제를 풀며 마무리 학습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마을 어장에 잠수침입 전복 등 1억원대 훔쳐

완도해경, 4명 검거

완도해양경찰은 16일 마을 공동어장을 돌며 전복 등 해산물을 몰래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미역 양식업자 채모(46·장흥군 회진면)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03년 초부터 장흥·진도 일대 공동어장에서 180여 회에 걸쳐 전복·해삼·뿔소라 등 해산물 1억600만원(5천245kg)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8시~새벽 3시께 산소통을 멘 잠수부와 함께 고속엔진을 장착한 배를 타고 어장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 수협 위판장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씨는 ▲면세유 2만2천300ℓ를 공급받아 수산물 절도에 이용한 자신의 1.77t급 선외기 어선에 사용했으며 ▲전복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9~10월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 가담한 홍모(32)씨는 불구속 수사하고, 주모자 급인 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환자 124시간 묶어 숨지게

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환자를 장기간 격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원장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이모(52)씨가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124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씨는 풀려난 뒤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나원참 〈6951〉 김종두

매맞은 남편 홧김에 “강도 들었다” 신고

쌍나팔

○…20대가 부부 싸움 도중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자 ‘강도가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10명이 넘는 무장 경찰이 출동 하는 등 한바탕 해프닝.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이모(29)씨 집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권총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 14명이 출동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는 것.

○…이씨는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28)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씨가 부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조치.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